

'금속문화의 태동지 완주역사' 전시 호평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열린미술관서 27일까지 1회차 전시
내달부터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 찾아가는 전시회 진행

2100년 전 최첨단 금속기술의 태동지가 완주군이었음을 확인해 주는 전시회가 호평을 받고 있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서면 반교리에서 발굴된 완주갈동·신흥유적 유물과 역사자료를 홍보하기 위해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에서 '금속문화의 태동지 완주역사' 찾아가는 전시회를 개최, 갈수록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열린미술관에서 지난 2일부터 관람객을 맞고 있는 1회차 전시회는 이

달 27일까지 이어진다. 다음 달부터는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취팔죽도서관 등의 순으로 전시회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2100년 전 '금속문화의 태동지 완주역사' 전시는 이서면 갈산리 구석기 유적부터 마한 성립기와 발전기에 각각 해당하는 이서면 갈동유적과 신흥유적, 용진읍 상운리 고분군을 포함한 완주군 주요 유적들을 관낼 12면에 담아

냈고, 완주의 문화유산 3D 홀로그램 기기를 활용하여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전북 마한 문화를 보여주는 갈동유적의 청동거울과 세형동검 거푸집 유물을 3D로 복제 전시함으로써 '금속문화의 태동지'가 완주임을 널리 알리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거푸집은 여러 점 확인된 사례가 있었지만 출토 위치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완주 갈동 유적이 유일하다.
전북에서 청동기를 제작하던 공방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용했던 흔적이 명확한 이 거푸집 출토 사례를 통해 2100년 전 완주 사람들이 청동기를 직접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번 전시회는 2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는 한반도 금속의 시대가 완주에서 태동했음을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관람객들의 관심과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최성호 공영개발과 과장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완주 지역의 뛰어나고 독창적인 역사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찾아가는 전시회를 기획했다"며 "2100년 전 완주 사람들의 금속을 다루는 기술수준에 관람객들의 감탄이 이어지는 등 전북 혁신도시에 대한 애정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100년 전 최첨단 금속기술의 태동지가 완주군이었음을 확인해 주는 전시회가 호평을 받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환상적인 아트 서커스 무대 펼쳐진다

국립전주박물관, 21일 옥외트랙서 동춘서커스 '초인의 비상' 공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1일 오후 6시 옥외트랙에서 동춘서커스 '초인의 비상'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동춘서커스는 볼거리가 많지 않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의 어려웠던 서민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며 대한민국 서커스 역사를 만들어온 전통 있는 서커스단으로 1925년 창단 이후 무려 96년 동안 이어져왔다.
'초인의 비상'은 국내 처음으로 소개되는 작품으로, 인간이 신체로 표현할 수 있는 미적 감각과 초인적인 힘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로 꾸며진다. 전통적인 곡예와 묘기, 음향과 무대예술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아트 서커스를 만날 수 있다.
특히 특수무대 장치와 크레인 등을 이용한 수직 줄타기, 한손 물구나무서기, 공중 로맨스, 링 체조 등 15가지의 스타일 넘치는 프로그램이 70분 동안 쉼 없이 펼쳐진다.
한편 국립전주박물관은 특별전 '이집트 - 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를 개최, 실제 미라를 비롯한 94점의 고대 이집트 문화재도 전시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웅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속

사적 지정 위한 문화재청 현지조사

진안군 부귀면 소재 웅치전적지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규명을 통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웅치전적지(전라북도 기념물, 1976. 4. 2.지정)는 기존 완주군으로만 지정되었던 문화재구역이 아닌 진안 세동리 덕봉마을에서 완주 신촌리 두북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로 밝혀지면서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을 포함해 2021년 8월 27일 문화재구역을 재설정했다.
진안군은 전라북도·완주군과 공동으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18일 김현모 문화재청장 방문 시 웅치전적지의 사적지정 지정을 요청했고, 웅치전적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번 현지조사를 이재운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장(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명예교수) 등 4명의 문화재위원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전라북도·완주군 관계자, 김창렬 진안군수 권한대행 및 문화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과 학계·관계 도·군 관계자들은 이날 현지조사 후 보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운 위원장은 "웅치전적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우리민족에 중요한 전부로 사적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전라북도·진안·완주와 함께 문화재청이 잘 협력해서 소중한 유산을 잘 지키고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대 고현정 교수팀, 아르떼 문화예술교육사업 선정

지역 청소년 대상 발레 공연 기획 등 '쁘띠 예술가의 Think like a Freak!' 추진 박차

전북대학교 고현정 교수팀(무용학과 발레)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아르떼)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2022 꿈의 무용단 운영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발레 전공인 고현정 교수는 '쁘띠 무브먼트 아트랩'이라는 단체를 설립해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와 교육이 복합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이번 꿈의 무용단 선정으로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발레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고현정 교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쁘띠 예술가의 Think like a Freak!'라는 주제의 교육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쁘띠 예술가의 Think like a Freak!'은 발레를 토대로 연극과 미술, 영화, 무용 분야 예술가들과 협업해 청소년들



이 직접 스토리텔링부터 공연의 기획, 제작, 출연까지 하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과 관심사를 '춤 움직임'을 통해 풀어낸다.
학생들은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예술 경험을 쌓고, 영화나 설치미술, 기획, 안무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고현정 교수는 "발레와 타 예술장르와의 만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 분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이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대학이 가진 우수한 인·물적 인프라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